시민군 형과 계엄군 동생의 '그 날' 회고

5·18 광주민중항쟁 당시 시위대에 참가해 총상을 입은 장선호(오른쪽)씨와 계엄군으로 광주에 파병됐던 동생 진호씨가 옛 전남도청에서 당시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총상입은 형앞 눈물 '뚝뚝'

형 26주년 행사 기획 맡고
동생은 공로훈장 모두 버려
"그 때 생각하면 가슴 서늘"

장선호(51·광주시 북구 우산동)·진호(49·인천시 중구 신흥동) 형제는 5·18에 대해 남들과 다른 특별한 사연을 가지고 있다. 선호씨는 옛 전남도청 앞에서 시위대와 함께 민주화를 외치다 총상을 입었고, 진호씨는 시위대에 총부리를 겨눈 계엄군이었다.

이들 형제가 지난 13일 옛 전남도청 앞에서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80년 이후 형제가 5월의 함성이 묻혀있는 옛 도청에서 만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계엄군의 첫 발포가 있었던 80년 5월21일, 양장점 직원이었던 선호(당시 25세)씨는 어머니가 숨겨놓은 운동화를 찾아 옛 전남도청 앞으로 달려갔다. 금남로에서 열린 둘째 형의 결혼식에 갔다가 계엄군이 시민들을 구타하는 모습을 보고 분개, 시위대에 합류한 것이다.

갑자기 '탕~탕~'하는 총소리가 곳곳에서 들렸다. 선호씨는 왼쪽 가슴에 큰 상처를 입고, 현재 광주 YMCA 뒷골목으로 도망쳐 '반 이비인후과'의 문을 두드렸다. 그는 이곳에서 지혈을 한 뒤 기독교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형이 사경을 헤매고 있을 무렵, 당시 20사단 60연대 2대대 일병이었던 동생은 성남 공군비행장에서 헬기를 탔다. 광주에 도착한 시각은 23일 새벽 3시. 동생은 실탄 105발을 지급받은 후 대성초등학교(남구 월산동) 인근 가정집을 돌며 '폭도 색출'에 나섰다.

진호씨가 형의 부상을 알게 된 것은 항쟁이 끝난 6월 초. 광주 공군 비행장에 주둔해 있던 부대가 고향이 광주인 장병에게 3박4일간 특별외박을 줘 집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이다. 진호씨는 형의 병상에서 뚝뚝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제대하면서 '광주의 폭도들을 훌륭하게 진압한 공로'로 받았던 훈장을 모두 버렸다.

형은 현재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조직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제26주년 기념행사위 상설기획단을 맡고 있다. 동생은 한전 인천지사 경영혁신과장으로 재직 중이다.

선호씨는 아직도 26년 전의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서늘하다. 수술대에 누우면서도 동생 부대가 파병됐다는 소식을 듣고 "제발 동생이 무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었다. 군사정권 하에서는 행여 동생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까봐, 자신이 5·18 부상자라는 것을 알리지 않았다. 반면 동생은 형이 후유증으로 다시는 재봉틀 앞에 앉지 못하게 된 것이 안쓰럽기만 하다.

형제는 "피를 흘렸던 사람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고 숭고하게 기억되는 5·18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농산물 품질관리원 전남지원 공채

정답 적힌 시험지 나눠줘

오는 20일 재시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원장 신동하·이하 농품원)의 공개채용 시험에서 정답이 기재된 시험지가 응시자들에게 배부돼 재시험을 치르게 됐다.

15일 농품원에 따르면 지난 13일 실시한 '2006년 제1회 별정직 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의 '농업 전산 및 통계상식'과목 A형 시험지 50문항 중 12문항(39번~50번)이 정답이 표시된 채 응시자들에게 배부됐다.

농업통계조사담당(9급 상당) 1명을 채용하는 이날 시험에는 44명의 응시자가 지원했으며, 22명이 A형 시험지를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은 시험 후 퇴실하던 한 응시자가 감독관에게 "정답으로 보이는 숫자가 문제번호 앞에 써있다"고 말하면서 알려졌다.

농품원은 중앙인사위원회의 지침을 받아 이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고, 오는 20일 재시험을 치르기로 결정했다. 또 이 같은 사실을 응시자들에게 전화로 통보했으며, 15일 사과문을 작성해 등기로 발송했다.

농품원 관계자는 "전날 시험지 원본을 검토하면서 모범 답안을 문제 옆에 기재해 놓고 지운다는 것을 깜빡했다"며 "재시험 날 응시자들에게 교통비와 식비 등을 사과의 뜻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해명했다.

/임주형기자 jhlim@

동네병원 '툭하면 주사'

광주·전남 종합병원 주사 처방률 전국평균 웃돌아

광주·전남 종합병원들의 지난해 4분기 주사제 처방률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병원 규모가 적을수록 주사제 처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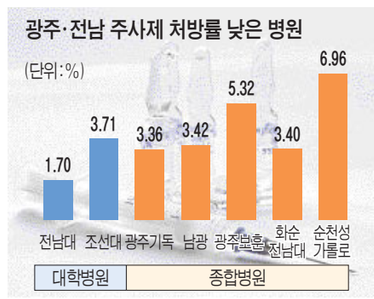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5일 전국 병·의원 2만2천765곳의 주사제 처방률을 조사한 결과,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의 주사제 처방률(필수 주사제 제외)이 각각 1.70%, 3.71%이었다고 밝혔다.

전국 대학병원 평균은 3.59%로, 전남대병원이 전국의 대학병원 중 가장 주사제 처방률이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지역 12개 종합병원의 주사제 처방률 평균은 14.29%(전국 평균 9.96%)로 처방률이 낮은 병원은 기독병원(3.36%)·남광병원(3.42%)·보훈병원(5.32%) 순이었다.

전남지역 18개 종합병원 중 전국 평균을 밑도는 종합병원은 순천 성가롤로병원(6.96%), 화순 전남대병원(3.40%) 등 2곳 뿐이었다.

광주지역 의원 중에서는 광주신경과, 김선명안과, 김화영소아과, 더모미지예피부과, 안이비인후과 등 11개 의원이 처방률 0%(전국 평균 27.91%)를 기록했다. 전남지역 의원들은 36.85%로 경남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주사제는 먹는 약에 비해 체내 흡수가 빠르지만 지나치게 처방할 경우 급성쇼크와 혈관염 등 부작용의 위험도 크다.

의료기관의 명단과 주사제 처방률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서울시 前 주택국장 한강 투신자살

'현대차' 관련 검찰 재소환 앞두고

현대자동차 사옥 증축 인허가와 관련해 검찰수사를 받아온 서울시 전 주택국장 박석안(60)씨가 팔당호에 빠져 숨진채 발견됐다.

15일 오전 10시께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광동리 팔당호에서 보트를 타고 순찰을 돌던 팔달상수원관리사무소 한강감시원이 강물에 떠있는 박씨의 사체를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박씨가 광동교에서 투신자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대검 중수부는 "박씨가 현대차로부터 그랜저XG를 730만원 할인된 2천934만원에 구입한 품의서를 압수해 3~4차례 소환조사했었고, 오늘 오전 9시30분 출두하도록 통보했었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사옥증축 부지에는 당초 현대차 R&D센터가 들어설 수 없었으나 2004년 5월 서울시가 관련 규정 개정을 건설교통부에 요청해 건립이 가능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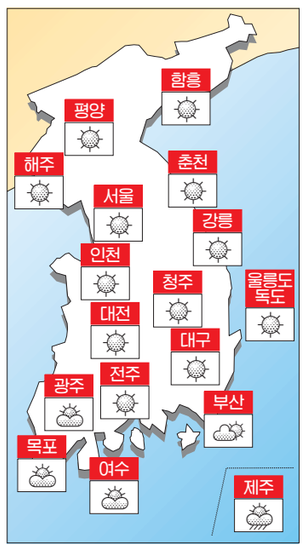
박씨는 유서에서 "(검찰이) 건물 증축과 관련된 종합작품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의 책임을 무리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며 검찰 수사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연합뉴스

초여름 더위 계속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이 끼겠다.

5월 16일 (음 4월 19일) ◇전국날씨

광 주	구름많음	13~26℃
목 포	구름많음	14~23℃
여 수	구름많음	14~20℃
완 도	구름많음	12~22℃
구 례	구름많음	10~27℃
해 남	구름많음	10~23℃
장 흥	구름많음	10~23℃
고 흥	구름많음	9~22℃
순 천	구름많음	8~26℃
영 광	구름많음	13~24℃
진 도	구름많음	10~24℃
전 주	구름조금	12~26℃
남 원	구름조금	9~27℃
정 읍	구름조금	12~26℃



서해남부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0.5~1.5m
먼바다=남서~서풍 파고 1.0~2.0m
남해서부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0.5~1.5m
먼바다=남서~서풍 파고 1.0~2.0m

목 포 밀물 04:09 15:59 썰물 09:21 21:15
여 수 밀물 10:42 23:26 썰물 04:52 16:37

▲해뜸 05:28 ▲해짐 19:30 ▲달뜸 22:54 ▲달짐 07:16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7(수)	18(목)	19(금)	20(토)	21(일)	22(월)
날 씨						
최저/최고	14/26	15/26	16/22	16/27	15/29	15/28

'스승의 날' 스승들의 반성

광주 인화학교 교사 13명
무기력·비양심 행동 사죄

청각장애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광주 인화학교 교사들이 스승의 날을 맞아 '교사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채용비리도 저질렀다'며 자기반성을 했다.

광주 인화학교 교사 13명은 15일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6월 일부 교사 및 관리자들이 학생들을 성폭행해 처벌받은 사건과 관련, '학생을 보호 못한 교사로서 사죄드립니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피해 학생과 학부모 앞에 고개를 숙였다.

교사들은 이날 "(그동안 은폐됐던 성폭행 사건이 세상에 알려질 때) 권위적인 법인의 기세에 억눌려 눈치만 보고, 소리 높여 항의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그동안의 무기력하고 비양심적인 행동과 태도에 대해 사죄한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한 교사는 "피해학생들이 성폭행 사실을 담당 교사와 관리자에게 알렸으나 묻혀버렸고, 이로 인해 피해학생들이 교사들을 믿지 못하고 이후 피해를 당하더라도 말을 하지 않았다"며 교사들의 무관심과 소홀이 더 큰 피해를 가져왔다고 고백했다.

이 교사는 "교사 채용과정에서 학교 측과 신규 교사와의 금품 수수가 분명 있었다"며 일부 교사의 비리 연루에 대해서도 털어놨다.

또 다른 한 교사는 "학교에 들어올 때 당시 교장에게 500만원을 줬고, 가장 가까운 학생을 지켜주지 못한 수치스러운 교사로서 과오를 반성한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盧대통령 저지 않겠다"

민노총 광주·전남 본부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본부장 정희성)는 오는 18일 5·18광주민중항쟁 기념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하는 노무현 대통령을 저지하지 않겠다고 15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하이스코 협력업체 비정규직 문제가 사측과 합의되고, 지난 주말 평택시위에서 군대를 동원한 강제진압이 발생하지 않은 점을 감안, 노 대통령의 내광(來光)을 저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교사 자살' 진상조사 착수

학교 운영 문제를 놓고 학교 측과 갈등을 빚다 지난 13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광주 I고 김모(45) 교사 사건과 관련, 광주시교육청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광주시교육청은 15일 장학관 등 2명을 광주 I고로 보내 학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다.

시 교육청은 사실 조사를 마친 뒤 사건 당사자와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황태종기자 hwangtae@

곽내영고시학원
"교원임용 강좌에도 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초등교사, 중등교사, 보건교사, 유치원교사, 전문상담교사, 영양교사 임용시험을 준비하고 다양한 학생들의 학습욕구를 해결하려면 우선 다양하고 검증된 합격커리큘럼과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 및 학생구모등 제반 여건이 갖추어져야 하고, 비교 우위의 최고 강사진이 전공과목별로 담당해야 합니다. 곽내영 교육학의 교수진은 하루, 이틀에 구성된 것이 아니라 수년간 수많은 합격자들을 배출한 높은 합격률로써 입증된 최고 강사진 입니다. 그러므로, 합격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역시, 교원임용시험은 교수진이 최고여야 돼"
여름방학 특강 개강 7월 1일(현재 예약접수중)
▶ 교육학/곽내영 선생 ▶ 국어/최병해 교수 ▶ 국어교육론/마운용 교수 ▶ 영어/송옥 교수
▶ 수학/임대성 교수 ▶ 과학교육론/장영민 교수 ▶ 물리/장영민 교수 ▶ 화학/이영철 교수
▶ 생물/강치욱 교수 ▶ 지구과학/박명순 교수 ▶ 사회교육론/김형수 교수 ▶ 일반사회/김형수 교수
▶ 체육내용학/김용호 교수 ▶ 체육교육론/조남용 교수 ▶ 미술/김성희 교수 ▶ 음악/박성선 교수
▶ 유아교육과정/임미선 선생 ▶ 초등교육과정/위재권 선생
전국 최강의 강사진 만을 모셨습니다.
수강문의 : 062-529-0090 전남대 정문앞(신안사거리) http://www.naeyoung.com

교원임용 동영상 강의
에듀뷰넷
http://www.eduview.net
전국최고의 유명강사진 총집결
교육학 곽내영 / 유아교육 임미선 / 미술 김성희
국어 최병해 / 영어 송 옥 / 수학 임대성
체육 김용호 / 공통과학 장영민 / 일반사회 김형수
현재 성황리 강의중
문의 : (02)816-1646

대한민국 경찰 드림팀 광주 상륙!!!
노량진 경찰학원 그명성 그대로…
김재규 경찰학원 탄생
개강 5월 8일
김재규 경찰학원 최고의 교수진
*경찰학 개론:김재규 교수
*수사 : 오수평 교수 *영 어 : 오순아 교수
*형법 : 윤경근 교수 *형소법 : 윤경근 교수
김재규 경찰학원 전문 시스템
• 기본이론반(오전)+문제풀이(오후)+기초특강
• 기본반, 심화반 선별 맞춤 수강, 전용 자습실 사용
• 다년간 경찰수험생들을 관리하고, 전문화된 학습 시스템
경찰공무원 멈추지 않는 합격신화!!
김재규 경찰학원 드림팀을 광주에서 직접 만나시기 바랍니다.
www.police3112.com
경찰 공무원의 꿈을 실현하는 곳
광주 김재규경찰학원
전남여고앞 236-3112

hanbitgosi.co.kr
=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 시험대비 =
공무원 첫진도·교정직특채
개강:5월 1일 전문학원!! 전문강사진의 명쾌한 강의만이 당신의 합격을 앞당깁니다.
한빛공무원학원
광주 동부경찰서뒤 전남여고 건너편 ☎234-0234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전국 수석 본·원·출·신 송 은 영 님 평균 96.7
광주고시학원
5월 1일 첫진도 시작반
합격률 1위에 이은 또 하나의 쾌거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광주지역 합격자 384명 중 본원출신 307명 합격!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광주지역 합격자 623명 중 본원출신 498명 합격!
합격률 1위
광주고시학원 www.gwangjugosi.com ☎ 227-8003
도청 앞 전일빌딩 뒤 / 지하철 도청역 6번출구

●개강:5월 1일
2006년 법무부 교정직 9급(교도)
특별채용 1,000명!!
= 20세~40세 (직장인 공무원 되기위한 절호의 기회) =
특채 시험과목: 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개론
경찰직 준비생 절호의 기회!(2과목만 하면된다.)
합격개강 수시모집
무등고시학원 동부경찰서뒤 222-4560